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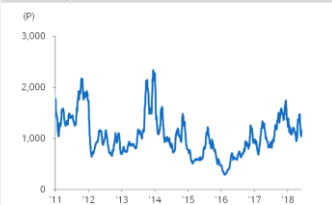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8,645.7	16.4	125,000	3.3	0.4	-8.8	30.3	87.1	41.8	0.6	0.6	0.7	1.4
현대중공업주	6,368.1	21.7	391,000	1.2	-5.6	-9.6	2.6	5.3	4.4	0.7	0.6	14.1	14.7
현대일렉트릭	912.4	4.5	89,400	-1.1	-10.6	5.7	-21.6	8.5	7.4	0.8	0.7	9.3	9.7
현대건설기계	1,629.6	8.4	165,000	1.2	-10.1	-6.3	-2.4	10.5	7.7	1.2	1.0	11.7	13.9
삼성중공업	4,806.9	17.3	7,630	0.8	2.8	0.1	18.0	48.1	23.9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2,905.3	4.9	27,100	-0.6	7.5	2.8	95.0	8.1	11.3	0.8	0.8	10.7	7.0
현대미포조선	1,852.0	9.9	92,600	0.0	-8.3	-13.1	17.7	20.0	14.4	0.7	0.7	3.6	4.8
한진중공업	356.3	6.6	3,360	1.5	-4.8	2.0	1.5	67.6	16.9	0.5	0.5	0.7	2.8
현대엘리베이터	3,326.9	22.2	122,500	-1.2	22.6	95.7	125.2	21.6	21.0	3.0	2.6	14.6	13.3
두산발켓	3,348.5	26.7	34,300	-0.9	7.4	8.5	-4.2	12.6	11.8	1.0	0.9	7.4	7.6
현대로템	3,225.8	9.1	37,950	-2.3	19.3	140.2	102.4	48.9	33.4	2.2	2.1	4.5	6.3
하이록코리아	394.8	49.3	29,000	-0.7	5.1	23.1	28.9	13.1	12.0	1.1	1.0	8.8	9.0
성광벤드	371.8	17.6	13,000	2.4	3.2	7.4	30.3	1,149.2	46.6	0.8	0.8	0.1	1.8
태광	366.4	12.5	13,450	1.9	-7.9	-5.9	11.6	80.3	39.2	0.8	0.8	1.0	2.1
두산중공업	2,017.5	11.9	18,950	-0.5	-1.3	31.6	23.5	20.6	11.9	0.6	0.6	3.6	5.4
두산인프라코어	2,206.4	15.8	10,600	-0.5	2.4	20.6	22.0	7.6	6.9	1.2	1.0	16.0	15.1
두산엔진	496.9	4.5	7,150	0.0	6.1	62.5	94.0	-25.1	-39.6	1.0	1.0	-3.0	-3.5
한국항공우주산업	4,649.6	14.7	47,700	7.4	5.2	-0.4	0.5	36.5	27.1	3.7	3.3	10.3	12.9
한화테크윈	1,675.3	12.8	31,850	1.1	22.7	14.0	-10.4	35.8	20.6	0.7	0.7	2.1	3.5
UG엑스원	1,163.8	9.1	52,900	6.9	24.6	17.2	-11.5	22.9	15.5	1.8	1.6	8.6	11.4
태웅	369.1	4.8	18,450	0.8	-10.0	-5.9	-4.7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174.6	4.6	6,470	-0.5	2.1	-26.9	28.1	-47.6	68.1	2.0	2.0	-4.3	3.1
한국카본	275.2	13.7	6,260	-0.6	1.3	-11.6	16.8	34.1	17.8	0.8	0.8	2.5	4.7

주: 카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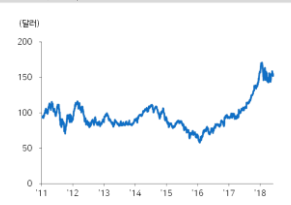
주요 지표 및 차트

Baltic Dry Index(BDI) : +55 13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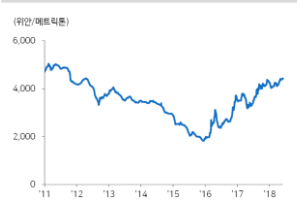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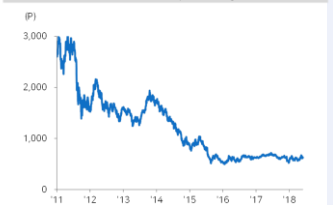
Caterpillar(CommonStock) -0.22 156.29



중국 내수 후판 가격 (CDSPSPAV Index)



KRX 조선업 지수(KRX Shipbuilding Index)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HMM opts for scrubbers on big boxship orders

현대상선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한 12척의 2.3만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LNG-Ready 형식으로 건조함과 동시에 스크러버를 장착할 계획으로 알려짐. 반면 현대중공업에 발주한 1.4만TEU급 8척은 추진시스템이 명확하지 않으나 인도 날짜인 2021년까지 선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LNG추진 방식으로 건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있음.

현대상선이 초기에 발주할 수 있는 옵션은 1) 기존 엔진, 2) 스크러버 장착, 3) 스크러버 장착+LNG-Ready, 4) Dual-fuel 엔진 등이 있었음.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2.3만TEU급 컨선은 스크러버 장착 시 1.5억달러, Dual-fuel 장착시 1.6억달러 이상이며, 1.4만TEU급 컨선은 스크러버 장착 시 1.1억달러, LNG추진선일 경우 1.2억달러에 근접한다고 알려짐. (TradeWinds)

한국, 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남북 철도연결 '청신호'

국토교통부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가입신청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힘. 한국은 북한의 동의를 얻어 국제철도협력기구의 정회원국이 되면서 유라시아 철도연결을 목표로 '4·27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남북 간 철도 연결사업이 향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뉴스1)

'수리온' 타본 필리핀 두테르테, 한국헬기 구매검토 지시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최근 한국을 방문해 수리온 헬기를 타본 후 국방장관에게 한국 헬기 구매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알려짐. 필리핀은 캐나다 업체와 2.3억달러 규모의 헬기 16대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가 정치적 문제로 파기함. 이후 한국, 중국, 러시아, 터키 등으로 눈을 돌렸다고 알려짐. (연합뉴스)

Botas takes number of Turkish FSRUs to three with order at HHI

터키 에너지회사 Botas는 현대중공업에 17만CBM급 FSRU 1척을 발주했다고 알려짐. 인도는 2020년으로, 용선처는 알려지지 않음. Kolin and Kalyon이 작년 9월에 같은 사양의 FSRU를 현대중공업에 발주했고, 인도는 2019년으로 예정됨. 당시 발주된 FSRU 선가는 2.3억달러였음. (TradeWinds)

Marinakis joins the Greek crush targeting LNG entry

최근 그리스 선주들 사이에서 가스선 시장에 진출이 주류가 됨. 그리스 선주 Evangelos Marinakis는 LNG운반선 시장에 진출을 검토하며, Capital Maritime & Trading을 통해 국내 조선 3사에 LNG선 2척+a에 대한 발주 문의를 했다고 알려짐. 자세한 사양이나 건조선 발주의 시기는 알려지지 않음. (TradeWinds)

대한조선, 아프리카스 탱커 2척 수주

대한조선은 이번 Posidonia 행사 기간 중에 Tsakos Energy Navigation(TEN)에서 11.5만DWT급 아프리카스 탱커 2척을 수주했다고 알려짐. Tsakos는 Chevron에 용선을 제공하기 위해 건조를 준비 중이며, 대한조선과 성동조선해양 두 조선사와 건조상담을 했었음. (선박뉴스)

테크로스 ECS, 세계 7번째 USCG 형식승인 획득

테크로스는 국내업체 중 최초, 전세계에서 7번째로 USCG(미국 해안경비대)에서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에 대한 형식승인을 발급받았다고 알려짐. 해당 소식은 Posidonia에서 발표됨. 테크로스는 작년 10월 말 서류를 제출 후, USCG의 약 7개월 이상의 서류 검토 후 형식승인을 획득함. (선박뉴스)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검토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6월 8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6월 8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6월 8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